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 — 인지발달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 유형과의 관계 —

김 인 경 · 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lkind (1967)는 Piaget의 자아중심성(Egocentrism) 개념이 Piaget의 인지발달의 각 단계에서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특징이며, 4가지 질적으로 다른 자아중심성 형태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단계는, 출생시부터 2세경까지의 감각 운동적 자아중심성(Sensori-motor Egocentrism)인데 자신과 외부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시기로서,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가능하게 될때 해결된다. 둘째 단계는, 3세부터 6세경까지의 전조작적 자아중심성(Pre-operational Egocentrism)으로 상징과 대상을 변별하지 못하는 시기로, 언어를 배우고 동시에 두가지 차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해결된다. 셋째 단계는, 7세부터 11세경까지의 구체적 조작기의 자아중심성(Concrete operational Egocentrism)인데 정신활동의 결과와 지각된 현실과의 구별이 힘든 시기로, 자신의 정신작용보다는 실제자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가설을 수정하기 보다는 현실을 왜곡시켜 답을 찾는데, 이는 논리적 추리 능력, 분류, 관계성, 량 등의 개념을 획득하면서 해결된다. 끝으로, 인지적으로 성숙하여 형식적 조작 사고기에 접어든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 약 12세 경)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능력,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는 능력 등의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나, 이 시기의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듯 타인의 생각도 개념화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아직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생긴 인지적 왜곡 현상을 Elkind(1967, 1978)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ce Egocentrism)'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2가지 특징적 구인(construct)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타인들도 청소년들 자신들처럼 자신들의 외모와 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생각(가상적 청중, Imaginary Audience)과 둘째, 이와 같이 자신을 '타인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인물'이라 여기므로서 청소년 자신이 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 또한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다'라는 생각(개인적 우화, Personal Fable)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시에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강화시키게 되어, 높은 자의식이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된다. 따라서 Elkind는 청소년기 인지구조의 부산물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개념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독특한 행동적 및 정서적 경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Elkind와 Bowen(1979)은 가상적 청중 개념을 이용했는데, 초기 청소년기(13세)의 청소년들이 아동기나 후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에 비해 강한 자의식을 보이며 여아들이 남아들 보다 강한 자의식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Gray와 Hudson(1984)은 가상적 청중 현상과 형식적 조작사고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에서, 구체적 사고에서 형식적 사고로 진행되는 '과도기'에서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Elkind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여아들이 남아들 보다 강한 자의식을 보인다는 결과 만이 Elkind와 Bowen의 연구와 일치했을 뿐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자기 중심적 사고(egocentric thought)는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사회중심적(sociocentric)이고 타인 지향적인 사고를 보이며(Looft, 1972), 조직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종래의 연구결과(Tapp & Kohlberg, Adelson, Crain & Crain, Selman: Enright et al(1980) p102 인용)에 근거하여, Enright, Shukla와 Lapsley(1980)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전반적인 발달 양식(pattern)을 측정했다. 그 결과, 가상적 청중/개인적 우화의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그리고 자아중심성 감소에 대응하는 사회적 중심화(sociocentrism)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해 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self-focus) 차원과 연령과의 관계는 U자 형태의 곡선적 관계를 보여, 아동 후기에 높았던 경향이 점차 감소한 후 다시 청년기 후기에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최근의 몇몇 다른 연구(Simmon et al, 1973; Adams & Jones, 1982; Anolik, 1981)들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 또는 사회 환경적(social contextual) 요인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방법과 청소년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 출현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다른 부모 양육 태도 차원보다도 부모의 거부 및 통제 차원이 자아중심성을 강화시키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에는 신체적 애정 표현 차원이 자아중심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dams & Jones, 1982).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nolik(1981)연구에서 비행집단에서 가상적 청중 현상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부모(특히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보였다. 또한 일반 청소년의 자아중심성 행동의 절정연령이 13세인데 반해(Elkind & Bowen, 1981), 비행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늦게(평균 15세) 나타나고 있

다. 또한 Riley, Adams와 Nielson(1984)의 연구에서는 형식적 조작 사고의 사용이 증가하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과 자의식은 감소하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감소하면 자의식이 증가했다. 특히 여아의 경우 그와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장해 온 가족 내의 역동 관계 경험에 따라 후에 가정 밖에서 비슷한 사회적 장면에 처하게 되는 대인상호 작용에 있어서도 그 독특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 결과들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과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이란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인지발달과 병행하는 사회적 부산물이며, 인지발달에 따른 변화는 청소년 초기의 자아중심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청소년들 눈에 비친 부모의 사회화 과정(parental socialization practice)이 자아중심적 행동에 있어 개인차를 유발하게 된다(Riley 등, 198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초기의 자아중심성을 강화시키는 형식적 조작 사고과정(Elkind, 1967)과 이에 대한 해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조망 수용(social perspective taking)(Looft, 1972)의 2가지 다른 기제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Elkind(1967, 1978; Elkind & Bowen, 1979; 등)의 가설을 검증하려는 일련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재검증함과 아울러, 한국 문화 속에서 사회화 방법이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고 한다.

먼저 Elkind 가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도함에 있어서 이전 연구자들이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Elkind와 Bowen은 가상적 청중 개념의 내용 만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측정한 반면, Enright 등은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가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자신에 대한 관심의 집중의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므로써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Elkind 등은 개인의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나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개인에게 내재한 잠재력이나 능력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Enright 등이 제시한 좀더 포괄적인 척도가 Elkind의 이론적 가설 검증에 더욱 적합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 척도를 이

용해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양식과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인지발달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Elkind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문화 속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재은(1974)의 한국 가족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 유형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초기 청소년기에 강하게 나타나는가? 2) 형식적 조작 사고의 획득 초기에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3) 여아의 경우 남아 보다 강한 자아중심성을 나타내는가? 4) 부모의 양육태도를 바람직하지 않게 지각할수록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강하게 나타내는가?

방법 및 절차

피험자

피험자는 중학교 1학년(평균 연령 12.19세, 남:60명/여:60명), 중학교 3학년(평균 연령 14.31세, 남:62명/여:59명), 고등학교 2학년(평균 연령 16.23세, 남:62명/여:59명), 대학교1학년(평균 연령 18.87세, 남:60명/여:69명)등 8집단 전체 490명이었다.

표집대상은 중류 가정 출신의 일반학교 학생으로 삼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강동구에서 각 1개교씩, 대학은 서울 시내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에서 표집했다. 표집대상자의 80.1%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류 가정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11.4%가 아버지 부재, 그리고 11.4%가 어머니 부재 가정이었으며, 이와 같은 결혼 가정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측정도구 및 절차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Adolescent Egocentrism Scale: AES)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는 Enright와 (1979)의 Adolescent egocentrism-sociocentrism: AES 수정판과 Elkind & Bowen(1979)의 IAS(Imaginary Audience Scale)를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경향을 측

정하는 내용인 가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 IA),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s: PF),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self-focus: SF)으로 구성된 Likert형의 척도(5점 척도)를 구성했다(* 이하의 서술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을 AE, 가상적 청중을 IA, 개인적 우화를 PF,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SF로 약자를 사용할 것이다.). 문항내용의 '중요성 정도'를 '매우 그렇다'(1점-매우 자아중심적인 경향)부터 '절대 그렇지 않다'(5점-덜 자아중심적인 경향)로 평정하도록 하여 각 문항의 평정치를 합한 값이 한 개인의 자아중심성을 나타내는 AE값이 된다.

본 척도에 대한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r=.74$ 였고 AE와 하위영역과의 상관은 IA $r=.76$, PF $r=.67$, SF $r=.64$ 이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varimax회전식의 요인분석에서 IA, PF와 SF에 관련된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2. 지각된 부모의 양육 유형 척도

김재은(1974)의 '가정환경 진단 척도'의 일부분을 사용했는데, 이 척도는 전체 가정 환경 변인 중에서 가정의 분위기 영역과 부부간의 조화 영역을 제외한 하위영역(부모와 자녀의 접촉/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통제와 영향력/양육 및 보호/자녀에 대한 비판의 정도/설명/태도/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을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Cronbach alpha $r=.80$) 및 어머니($r=.81$)와의 관계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 차이를 분리하여 측정했다. 그이유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요인 분석의 내용은 '자녀에 대한 수용적 태도/친애(어머니는 애정으로, 아버지는 애정과 부양이 결합되어 나타남)/전제적 통제/아버지의 엄격성(어머니의 과보호)/자율성(김재은 연구에서는 없던 차원)이었다.

3. 인지발달 수준 측정(Formal Operational Thought)척도

Lawson(1978)의 '형식적 사고 검사(Classroom Test of Formal operations)'의 수정판을 사용했다. 그 내용은 보존개념(2문항), 비울추리(4문항), 통제개념(4문항), 조합추리(2문항), 그리고 확률추리(3문항)이다. 본 척도의 Cronbach alpha는 $r=.72$ 였고 하위영역과의 상관은 각각 $r=.67$, $r=.70$, $r=.68$, $r=.65$, $r=.71$ 이었다. 난이도가 상, 중,

하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험자의 반응 결과는 문항 당 1점씩 계산하여 전체 정답수를 기준으로 0점에서 5점까지는 구체적 사고기, 6점에서 11점까지는 과도기, 12점에서 15점까지는 형식적 사고기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

각 검사는 2명의 훈련된 검사자에 의해 각 학급에서 집단 검사로 실시되었다.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척도(AES)를 제일 먼저 실시한 후 인지발달과 지각된 부모에 대한 양육 유형 척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결과

연령과 성별에 의한 AE의 전반적인 발달 경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4)과 성별(2)에 의한 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다.

그림 1과 같이 AE평균은 중1(만12세), 중3(만14세), 고2(만16세), 그리고 대1(만18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 483)=5.364, p<.001$]를 보이고 특히 중3과 고2 집단에서 AE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AE 경향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통계적 차이[$F(1, 483)=11.187, p<.001$]을 보여 남자들보다 여자의 경우 높은 AE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AE의 하위영역인 IA, PF, SF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IA경향에서 중1, 중3, 고2, 대1 간의 통계적 차이[$F(3,$

$483)=2.873, p<.05$]를 보여 중3과 고2집단에서 증가되었던 IA경향이 대1집단에서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 483)=6.824, p<.01$]를 보이고 있어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높은 IA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은 없다. PF경향은 중1, 중3, 고2, 대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 483)=8.739, p<.001$]를 나타내어 연령 증가에 따라 PF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 483)=8.739, p<.05$]를 보여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높은 PF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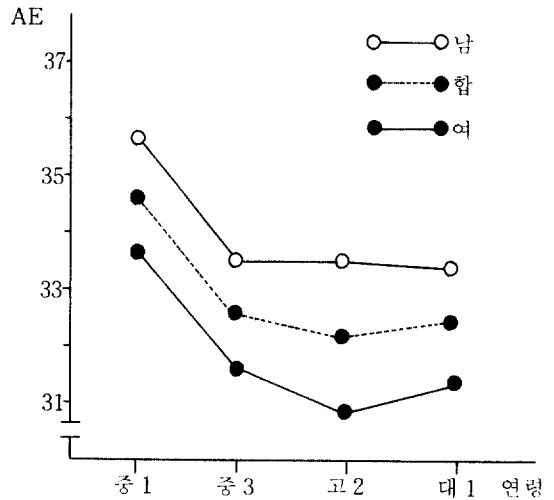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AE 경향성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집단	(N)	중 1			중 3			고 2			대 1		
		남 (60)	여(60)	합 (120)	남 (62)	여 (59)	합 (121)	남 (62)	여(59)	합 (121)	남 (60)	여(69)	합 (129)
AE	M	35.78 ^a	33.68 ^a	334.73 ^a	33.55 ^a	31.66 ^a	32.63 ^a	33.55 ^a	31.00 ^a	32.31 ^a	33.53 ^a	31.46 ^a	32.69 ^a
	SD	6.10	5.34	5.81	6.49	5.82	6.22	6.90	5.41	6.32	5.52	4.90	5.16
IA	M	13.02 ^b	12.55 ^b	12.53 ^c	12.44 ^b	11.34 ^b	11.90 ^c	11.92 ^b	11.31 ^b	11.62 ^c	12.95 ^b	12.42 ^b	12.67 ^c
	SD	3.54	3.19	3.39	3.52	3.37	3.48	3.86	3.32	3.60	3.27	2.92	3.05
PF	M	13.04 ^c	12.10 ^c	12.58 ^a	11.97 ^c	12.02 ^c	11.99 ^a	12.16 ^c	11.24 ^c	11.71 ^a	11.08 ^c	10.72	10.89 ^a
	SD	2.52	2.33	2.47	2.87	2.86	2.85	3.07	2.31	2.75	2.39	2.41	2.04
SF	M	9.70 ^b	9.53 ^a	9.62 ^a	9.15 ^b	8.31 ^b	8.74 ^a	9.47 ^b	8.46 ^b	8.98 ^a	8.50 ^b	8.32 ^b	8.40 ^a
	SD	2.79	2.47	2.63	2.75	1.99	2.44	2.82	2.22	2.58	2.21	2.08	2.12

a: $p<.001$ b: $p<.01$ c: $p<.05$

러나 연령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SF경향에서 중 1, 중3, 고2, 대1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483)=5.349, p<.001$]를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1,483)=6.148, p<.01$]를 보여 여자들이 높은 SF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AE와 IA와 PF, SF경향성의 비모수 검증으로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p<.001$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다.

Elkind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지 발달 수준과 AE 경향성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인지발달 수준(3)과 성별(2)에 의한 이원 변량분석(two-way ANOVA)을 했다.

AE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발달 수준 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듯이 과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F(2,479)=2.571$]를 보이지 않았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AE의 하위 영역에서는 PF 경향이 인지발달단계가 높아질수록 자아중심성 경향이 낮아짐을 보여 통계적 유의성 [$F(2,479)=3.079, p<.05$]을 보이고 있으며 IA [$F(2,479)=.419$], SF [$F(2,479)=2.457$]도 과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남자와 여자의 AE평균 점수는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등 세 단계 모두에서 통계적 차이[$F(1,485)=12.432, p<.001$]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어느 인지발달 단계에 있던 일관성있게 높은 자아중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AE의 하위 영역인 IA([$F(1,485)=5.942, p<.05$], PF [$F(1,485)=5.740, p<.05$], SF[$F(1,485)=6.515, p<.05$])에서도 모두 남자와 여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AE, IA, PF, SF경향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Mann-Whitney U 비모수 검증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유형의 차이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기 위해서, 전체 표집에 있어서 부모 유형에 따른 AE 경향성을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결과, AE 경향에서는 통계적 차이를 얻지 못했다. 다만 IA경향성에서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F(5,485)=5.296, \beta=.2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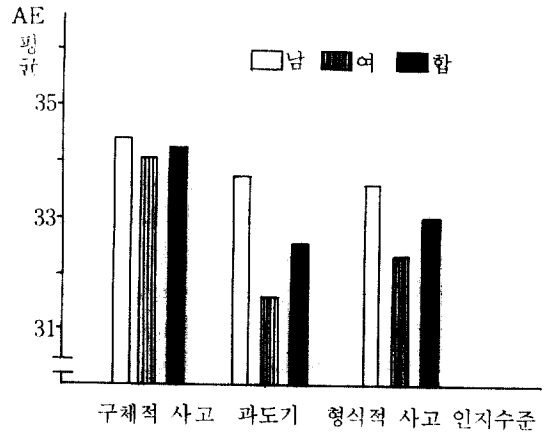


그림 2. 인지 발달 수준과 성별에 따른 AE 경향성

표 2. 인지발달 수준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집단	N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남(26)	여(28)	합(54)	남(133)	여(148)	합(281)	남(85)	여(71)	합(156)
AE	M	34.50a	34.11a	34.31	33.86a	31.31a	32.59	33.64a	32.39a	33.02
	SD	5.51	5.38	5.45	6.74	5.39	5.01	6.32	5.33	5.87
IA	M	12.23b	11.93b	12.08	12.52b	11.63b	12.08	12.76b	12.03b	12.40
	SD	3.69	3.30	3.50	3.54	3.27	3.44	3.59	3.07	3.43
PF	M	12.50b	12.71b	12.61b	12.02b	11.27b	11.65b	12.02b	11.46b	11.74b
	SD	2.92	2.05	2.47	2.91	2.68	2.80	2.71	2.29	2.56
SF	M	99.77b	9.46b	9.62	9.32b	8.36b	8.84	8.85b	8.90b	8.88
	SD	2.42	2.19	2.31	2.89	2.18	2.37	2.36	2.30	2.34

a : $p<.001$ b : $p<.05$

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친애 [$F(5, 485) = 4.344, \beta = -.19, p < .05$]와는 부정상관을 보였다. 또한 PF 경향에서는 어머니의 친애 [$F(5, 485) = 4.278, \beta = .13, p < .05$]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이외의 유형들에게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청소년들에게 비친 부·모 개개의 양육 유형과 남, 녀 청소년의 AE 경향성과의 관계를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남자들의 경우 AE경향에서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 유형이 AE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F(5, 238) = 4.019, \beta = .26, p < .05$], 그리고 아버지의 친애 유형 [$F(5, 238) = 4.421, \beta = -.28, p < .05$]과 어머니의 과보호 유형 [$F(5, 238) = 4.048, \beta = -.16, p < .05$]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이외의 유형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얻지 못했다. 한편, AE의 하위영역에서는 IA경향성과 아버지의 수용적 태도 [$F(5, 238) = 4.683, \beta = .31, p < .05$] 사이에는 정적 상관을, 그리고 아버지의 친애 [$F(5, 238) = 4.061, \beta = -.28, p < .05$]와 어머니의 과보호 [$F(5, 238) = 3.920, \beta = -.16, p < .05$]는 IA경향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의 유형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SF경향과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는 정적 상관을 [$F(5, 238) = 5.23, \beta = .20, p < .05$], 그리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F(5, 238) = 3.71, \beta = -.15, p < .05$]. 그의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PF경향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PF경향에서만 아버지의 친애유형이 정적 상관 [$F(5, 241) = 4.75, \beta = .28, p < .05$]을 보였을 뿐 그 이외의 유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했다.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던 인지발달 수준과 관련지어 본 자아중심성 경향성은 구체적 조작에서 형식적 조작으로 발달해가는 전환 과정인 과도기에서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Elkind 이론을 반박하는 다른 여러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Gray 등, 1984; Riley 등, 1984; Elkind, 1985; Enright 등, 1979; Lapsley 등, 1985; Lapsley 등, 1986).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한 가지 이유는 Blasi와 Hoeffel (1974)의 주장처럼 "구체적 조작 사고의 적응력"이 형식적 조작 사고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조작 사고의 획득은 청소년들이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시민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 가능성을 이해함과 더불어 자신의 기능에 객관성이란 차원을 부여하여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므로, 오히려 Elkind가 형식적 사고기의 인지적 왜곡이라 부르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 자아중심성 경향이 형식적 사고 이전에 강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AE척도의 각 요인의 내용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lkind 연구에서는 IA의 내용으로 AE 척도를 구성했는데, IA는 자신의 속성 중에서 타인에게 또는 자신에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능력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반면, Enright 등의 연구에서는 PF, SF를 첨가한 AE 척도를 사용했는데 PF와 SF의 내용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또는 자신의 내적 상태나 내면 세계에 대한 숙고에 관심이 갖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반적인 자아중심성 경향이 청소년 중기 이후에 강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진 하나의 생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청소년이 겪는 진학과 과도한 학업에 대한 부담은 자신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wson(1978)의 인지발달 수준 척도에 대해 그 자신이 실시한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답율과 평균점수에서 보다 점수가 높고 난이도에서도 문제를 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교에서 많은 량의 훈련으로 수리적 문제해결 능력이 추적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현실의 다른 과제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 유형과 자아중심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부모와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지각하는 경우 그 경향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부모의 통제와 지나친 방임이나 구속 사태에 놓여있다고 느끼는 경우 자아중심성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는 경우, PF 수준이 일관성있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낼 필요를 덜 느끼게 된다. 반면에, 부모가 지나친 수용적 태도와 사랑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 SF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내적 관심에 대한 숙고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AE, IA, SF, PF에 대

한 경향이 일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부모에 의한 간섭과 관리로부터 자신을 찾거나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보호나 무관심, 지나친 자율(방임)이나 타율에 의한 관리는 청소년의 AE 경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강화된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지나친 통제와 무관심, 혹은 방임 상태로 인해 무능력해진 자신과 타인의 관심 밖인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어 알리고 또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립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안정되고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내적 상태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Anolik(1981)과 Riley 등(1984), 그리고 Adams(1982)의 연구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Elkind 이론을 반박하는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은, Elkind가 주장하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의 내용이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의 여러 가지 하위 영역 가운데 오직 '가상적 청중'에 관한 결과만이 Elkind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Elkind의 척도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걸차림새'에 관한 IA내용의 질문만을 한 경우이며, Enright 등의 척도에서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행동', 그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에 대한 숙고' 등을 묻는 PF, SF 내용을 질문한 경우, 자아중심성 경향성에서 Elkind 이론과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물론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척도와 인지발달수준 척도의 두 측정 도구 간에는 질문 내용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지 발달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상호관계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자아중심성 척도는 '사람'에 대한 사고를 평가하는 반면 인지발달 척도는 '사물'에 대한 특히 수리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반응자가 가진 '사람 사물 격차(Person-Thing Decalage)'와 관련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란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고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서 특히 이런 현상은 소녀의 경우 더욱 뚜렷히 나타나며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초기 단계의 한 특징이 된다(Gray 등, 1984). 그래서 형식적 사고와 자아중심성 간의 예연적 관계가 이런 검사 문항의 독특한 성질로 인해 사실대로 정확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지발달척도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서 사물인지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인지적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 가정의 청소년들과 비행집단의 청소년의 경우 실제 가정 생활의 역동 관계에서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특이한 경험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영향도 있을 수 있고(Anolik, 1981), 또한 청소년기가 가정 이외의 친구 관계나 학교생활과 같은 또다른 영역의 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강력한 사회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임으로 이와 같은 사회화 영향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청소년들에게 비친 부모의 양육 유형에 의해 부모의 양육 유형을 분류·연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취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에게 서로의 관계와 실제 생활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의 지각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수집·비교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 특히 IA, PF와 같은 개념들을 Elkind를 비롯한 이전 연구자들에 의해 '자의식'이란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의식이란 그 표출 방법과 시기, 형태등에 있어서 연령, 문화, 직업, 성격 등 개인차가 개입될 수 있는 변인임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심리—가족관계 및 집단성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dams, G. R., & Gullotta, T.P.(1983). *Adolescent Life Experience*. Monterey, CA: Brooks/Cole.
- Adams, G. R., & Jones, R.M.(1982). Adolescent egocentrism: exploration into possible contributions of parent child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5-31.
- Anolik, S.A.(1981). Imaginary audience behavior and perceptions of parents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443-454.
- Blasi, A., & Hoeffel, E.(1974). Adolescence and formal operations. *Human Development*, 17, 344-363.
- Bronfenbrenner, U.(1961). Some familial antecedents of responsibility and leadership in adolescents. In Petullo and Bass(Ed.), *Leadership and Interpersonal Behavior*,

-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239-272.
- Chandler, M.J.(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 the assessment &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 tak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Conger, J.J.(1977). *Adolescence and Youth : Psychology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2nd ed.), New York : Harper & Row.
- Devereux, E., Bronfenbrenner, U., & Rodgers, R.(1969). Child rearing in England and the U.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1, 257-270.
-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Elkind, D.(1978). Understanding the young adolescents. *Adolescence*, 13, 126-134.
- Elkind, D., & Bowen, R.(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8-44.
- Elkind, D.(1985). Egocentrism redux. *Developmental Review*, 5, 218-226.
- Ellis, G., Thomas, D., & Rollins, B.(1976). Measuring parental support : the interrelationship of three measur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713-722.
- Enright, R.D., Lapsley, D.K., & Shukla, D.G.(1979). Adolescent egocentrism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14, 687-695.
- Enright, R. D., Shukla, D.G., & Lapsley, D.K.(1980). Adolescent egocentrism-sociocentrism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01-116.
- Ford, M.E.(1979). The construct-validity of egocentrism. *Psychological Bulletin*, 86, 1169-1188.
- Gray, W.M.(1976). *How is your logic?*(Experimental ed., Form A). Boulder, CO : 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 Gray, W., & Hudson, L.(1984). Formal operations and the imaginary audi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619-627.
- Heilbrun, A.(1964). Parental model attributes, nurturant reinforcement and consistency of behavior i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35, 151-167.
- Inhelder, B., & Piaget, J.(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n essay on the construction of formal operational structures*(A. Parsons & S.Milgram, Trans.). New York : Basic Book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55).
- Lapsley, D., & Murphy, M.(1985). Another look at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adolescent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01-217.
- Lapsley, D.(1985). Elkind on egocentrism. *Developmental Review*, 5, 227-236.
- Lapsley, D., Milstead, M., Quintana, S.M., Flannery, D., & Buss, R.R.(1986). Adolescent egocentrism and formal operations : test of a theoretical assump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00-807.
- Lawson, A.E.(197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lassroom test of formal reasoning. *Journal of Research and Scientific Teaching*, 15, 1-24.
- Looft, W. R.(1972). Egocentrism and social interaction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ical Bulletin*, 78, 93-102.
- Piaget, J.(1965). *The child's conception of physical causality*(A. Gabain, Trans.). Totowa, NJ : Littlefield, Adam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7).
- Riely, T., Adams, G., & Nielson, E.(1984). Adolescent egocentrism : the association among imaginary audience behavior,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support and refle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401-417.
- Schwarz, J.C.(1979). Childhood origins of psychopathology. *American Psychologist*, 34, 879-885.
- Schaefer, C.(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immon, R.G., Rosenberg, F. R., & Rosenberg, M.(1973).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53-568.

원고 초본 접수 : 1988. 4. 17
최종 수정본 접수 : 1988. 7. 15

Adolescent Egocentr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Kyeong Kim and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iming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heightened egocentrism during the early adolescence has been accounted for by the formal operational thought and the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Three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administered to the four different age groups both sexes of adolescents from the age of 12 to 18, and those are a modified version of the classroom Test of Formal Operations, a revision of the Adolescent Egocentrism-Sociocentrism, and the Diagnostic Scale for Family Atmospher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formal operation did not enhance adolescent egocentrism significantly, while the patterns of the perceived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were predictive determinants of adolescent egocentrism. Contrary to the previous theoretical assumptions, 14 and 16 year old adolescents who are at the level of transitional oper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at the level of formal operation in adolescent egocentrism. In addition, perceived paternal receptiveness and maternal autonomy were associated with diminished egocentrism for boys, while perceived paternal love, for girls.